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소아 언어치료

언어검사 및 언어치료 대상 아동.....1

일반적인 언어 발달 순서 및 형태.....2

언어 장애 별 평가 및 중재.....4

언어발달지연.....4

조음음운 발달의 문제.....5

유창성의 문제.....6

청각의 문제.....7

전반적 발달의 문제(자폐범주성장애).....8

뇌성마비에 의한 언어발달지연.....9

구순·구개열에 의한 말·언어의 문제.....10

뇌손상에 의한 언어 문제.....11

가정 내 언어 발달 촉진 지도 방법.....12

가정 내 발음 지도 방법.....18

가정 내 언어발달 촉진 놀이 소개.....21

Q & A.....22

목차

언어 검사 및 언어 치료 대상 아동

이와 같은 현상이 보이면, 우리 아이 언어발달의 적신호입니다.

시 기	현 상
0~3개월	말이나 의성어를 사용해 얼러도 들어보지 않는다.
4~6개월	조인중 소리, '안돼'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용알거리지 않는다.
7~12개월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들어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흉내 내지 않는다.
1~2세	그림책 속의 사물 이름을 가르쳐 줘도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 지적하지 못하며, '강아지 어디 있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2~3세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물 컵을 집어 이리로 가져 올래'와 같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시키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두 세계의 단어를 연결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3~4세	'누가, 무엇을, 어디서'가 들어간 간단한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 음소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며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일반적인 언어발달 순서 및 형태

시기

발달 수준



1~6개월

- ★ 울음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 ★ '우~아' 같은 모음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 ★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웅얼거린다.
- ★ 타인의 미소에 반응하며 따라 웃는다.
- ★ 다른 사람의 입을 유심히 바라보며 억양을 흉내내려한다.
- ★ 입모양을 바꿔 새로운 소리를 낸다.



6~12개월

- ★ 단숨에 여러 음을 낸다(/마/, /바/ 소리 표현).
- ★ 자기 이름이나 '안돼' 소리에 반응을 보인다.
- ★ 말에 행동이 동반되기 시작한다('빠이빠이'하며 손 흔들기),
- ★ 행동 뿐 아니라 단어까지 흉내 낸다.
- ★ 자신만 아는 짧은 문장을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 ★ 2~8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 ★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발음한다.



12~18개월

- ★ 완벽히 발음할 수 없지만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을 안다. ('무'라고 말하며 물을 가리킨다.)
- ★ 행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책 읽어달라는 말 대신 책을 가져온다.)
- ★ '이리와'하는 간단한 명령에 반응한다.
- ★ 엄마의 지시에 눈에 익은 사물을 가리킨다.
- ★ 신체 주요부위의 이름을 기억한다.
- ★ 6~7개의 단어를 정확히 발음한다.
- ★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 ★ 말할 수 있는 단어보다 훨씬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 ★ 어휘가 급증하는 시기로 하루 12개나 되는 단어를 습득한다.
- ★ 자기 이름을 말하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 흉내를 낸다.



18~24개월

- ★ 끊임없이 '저게 뭐야?'라고 묻는다.
- ★ 두 단어를 결합시켜 말한다.
- ★ 간단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간단한 단어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다.
- ★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여 작절이나 분노를 표현한다.
- ★ 200개 단어 이상의 어휘력을 갖춘 아이도 있다.
- ★ 어른의 억양, 행동을 흉내 낸다.
- ★ 짧은 문장을 표현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가능하다.



24~36개월

- ★ 어휘력이 급증하고, 명사와 동사를 결합한다.
- ★ 3~4개의 단어로 된 문장을 구성하고, 여러 품사를 구사한다.
- ★ '왜'라는 질문을 하고, 남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 ★ 2~3개 단어로 이루어진 명령을 이해한다.
- ★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책 속에 담긴 개념을 기억한다.
- ★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언어 사용에 자신감을 보인다.

언어 장애 별 평가 및 중재

언어발달지연

언어 발달 속도가 또래 아동들에 비해 느리며, 대개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 생활 연령보다 6개월~1년 이상 늦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학령 전기 아동의 경우
영유아 아동 언어발달검사(SELSI), 취학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언어검사(PRES), 의사소통기능검사, 상징행동발달검사, 자발화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력을 알아봅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수용 및 표현 어휘력검사(REVT), 구문의미이해력검사(KOSECT),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를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력을 알아봅니다.

중재

단순히 언어발달 지연만이 주문제인 아동의 경우 치료사 또는 아동 중심의 치료 접근법을 사용하여 놀이 상황 및 학습 상황에서 평행 발화, 확장, 확대, 수정 요청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를 촉진합니다. 언어의 의미, 구문, 형태, 음운, 화용론적 측면에서 언어 이해와 표현력 촉진을 목표로 중재합니다.

조음음운발달의 문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조음기관(입술, 혀, 경구개, 연구개 등)을 통하여 말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내에서 결함을 보이거나 조음(발음) 위치 및 방법이 잘못된 소리, 불명료한 조음으로 말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조음음운검사(U-TAP)를 통해 아동의 조음정확도가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 '조음치료 고려', '조음치료 요망'의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알아봅니다. 그후 아동의 조음 오류가 생략, 대치, 왜곡의 어떤 형태로 출현되는지와 조음 위치 및 방법 상 어떤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아봅니다.

중재

평가 결과, '조음치료 요망' 수준의 경우 학습 또는 놀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치료 접근법, 변별자질 접근법, 짝자극 기법 등 다양한 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무의미 음절 부터 단어, 구, 문장, 대화 수준까지 조음 오류를 보이는 음소의 정확도를 증진시켜 아동의 말명료도를 증진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조음치료 고려' 수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아동의 발음에 대해 관찰해보고 수개월이 지나도 발음 문제가 호전되지 않을 시 조음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유창성의 문제

말더듬은 대개 3~5세경에 많이 출현하며, 타인과 대화 시 말더듬 증상으로 말을 유창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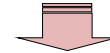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를 통해 아동의 비유창성(말더듬)이 '약함', '중간', '심함'의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알아봅니다. 그 후 아동의 말더듬이 단어, 문장, 읽기, 이야기(대화)의 어느 상황에서 출현되는지, 어떤 음소와 어떤 위치(맨앞과 중간, 맨뒤)에서 말더듬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봅니다. 또 말더듬의 형태가 핵심행동(반복, 막힘)과 부수행동(눈깜빡임, 고개 흔들기 등)이 함께 출현되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중재

유창성 평가를 통해 말더듬의 중증도를 알아본 후 아동의 나이와 중증도에 따라 중재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도의 말더듬인 경우 간접 치료(부모교육, 말더듬을 발생시키는 환경적 요소 제거 등)로 자발 유창성을 목표로 중재하고, 나이가 많고, 중도 이상의 말더듬인 경우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로 조절 유창성을 목표로 중재합니다. 말더듬의 원인은 유전학, 개인,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므로 부모의 유전, 양육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의 말속도 및 유창성, 아동의 성격 등 아동의 개인 측면 뿐 아니라 부모 형제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중재도 함께 이루어 집니다.

청각의 문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귀에서 뇌까지 청각 자극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이 모국어 소리 특성들을 감지하지 못하여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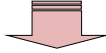
언어평가(Language), 말평가(Speech), 듣기능력을 평가합니다. 듣기능력은 Ling 6 sound test, CAP을 실시하고 언어연령 및 듣기능력에 따라 It-Mais, 낱말검사, 문장검사를 합니다. Ling 6 sound는 /아/, /이/, /우/, /쉬/, /스/, /음/의 감지 및 확인 여부로 회화음의 전 주파수 영역을 들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CAP은 청각 수행능력을 0-7단계로 나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It-Mais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한 영유아의 부모가 소리에 대해 아동이 보이는 반응을 답하는 설문지 형식의 검사입니다.

중재

기존의 언어치료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 연령에 맞게 어휘, 구문, 조음, 화용 측면에서 치료하며 청능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영유아, 학령전기, 학령기에 따라 중재 방법이 다르니 기본 치료 단계는 '소리감지→변별→확인→이해'입니다. 영유아를 예로 들면, 전화벨이 들렸을 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소리를 들었다는 반응이 있으면 '감지'한 것이며 전화벨과 초인종을 듣고 두 소리가 서로 '같다/다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변별'이고 아이가 전화벨을 듣고 전화기 쪽으로 간다면 '확인' 및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전반적 발달의 문제(자폐범주성장애)

특히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광범위한 문제들로 타인과 관심을 공유하고 주의를 함께 기울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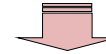
위 '언어발달지연'의 평가와 같습니다. 단, '전반적 발달의 문제'로 인한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단순 언어발달지연' 아동과 달리 지능, 심리사회, 감각통합, 대소근육 발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동들은 사회성, 인간관계, 화용 등의 측면에서 심한 어려움을 보이므로 타인과 함께 집중이 가능한지, 타인의 말소리에 관심을 보이는지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중재

언어, 인지, 정서 및 심리, 감각 등 전반적인 발달의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언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호자 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요구, 대답, 거부)을 울음과 문제행동(뛰어다니기, 벽 치기, 자해 등)이 아닌 언어 및 비언어적인 방법(그림카드전달, 가리키기, 제스처 등)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및 지능을 가진 아동의 경우 기능적인 언어 사용을 목표로 중재합니다.

뇌성마비에 의한 언어발달지연

선천적으로 미성숙한 뇌 발달 또는 후천적 뇌손상으로 몸의 운동과 자세에 문제가 생기고, 언어발달이 지연되거나 근육의 긴장 이상으로 조음(발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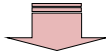
위 '언어발달지연'의 평가와 함께 조음음운검사(U-TAP)를 통해 아동의 언어와 말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중재

다른 문제의 동반 여부에 따라 언어 발달 지연 정도가 달라집니다. 심한 정도의 사지마비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언어 발달 지연 및 구어(입)로의 발화가 어려운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한쪽 편마비 또는 양쪽 하지마비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언어 발달 지연과 발음 문제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구순·구개열에 의한 말·언어의 문제

선천적인 원인으로 윗입술, 윗잇몸, 구개돌기, 경구개, 연구개 등이 파열되어 이로 인한 구어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인두 기능부전으로 과다비성이나 자음의 왜곡 등 발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가

‘언어발달지연’의 평가와 함께 음성, 공명, 조음 측면에서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음성 문제는 CSL, Visi pitch 등의 음성학 기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공명 문제는 Nasometer 기계를 이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중재

공명 측면에서 살펴볼 때, Nasometer 기계를 이용하여 비강과 구강의 분리, 비강자음과 구강자음의 변별 및 산출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조음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구순열과 구개열에 따라 치료 목표가 되는 자음이 달라집니다. 구순열의 경우 입술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술 자음의 정확도 증진을 위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구개열의 경우 입술부터 굳은 입천장, 어린입천장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음에 대한 정확도 증진을 위한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음 산출의 어려움으로 아동이 성문으로 보상 조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중재와 언어 발달 지연이 동반된 경우 언어학적 측면에서의 중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뇌손상에 의한 언어 문제

교통 및 추락사고, 뇌혈관 사고, 중양 등 후천적인 뇌손상 때문에 언어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화용론적 결함, 비유적 언어 및 이중 의미 등의 고차원적 언어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위 ‘언어발달지연’의 평가와 함께 추가적으로 화용 측면에서의 ‘담화(이야기) 분석’을 통해 언어 이해 및 표현력을 평가합니다.

중재

후천적 뇌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문제들로는 대화 시 주제 유지의 어려움, 청자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 대화 끼어들기 시 타이밍 조절의 어려움, 농담 및 속담, 은유적 표현의 이해 어려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가족 간, 또래 친구들 간의 대화 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의미 있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 측면에서의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가정 내 언어 발달 촉진 지도 방법

★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면, 아동은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말이든 몸짓이든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엄마가 아동에게 손가락 없이 아이스크림이 담긴 그릇만 주어 아동의 궁금증과 요구를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 아동의 표현이 무의미해 보이는 경우 ★

아동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소리나 몸짓을 하는 경우라도, 부모는 그 상황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동의 무의미한 표현에 부모가 꾸준히 반응한다면, 아동은 자기 자신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몸짓이나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아동 : (밥을 먹으면서) "\$%^&@!"

엄마: "아~ 맘마 맛있다." (의미없이 외계어를 하는 아동의 말을 엄마가 상황을 이해하여 아동의 말을 정확히 되짚어서 다시 이야기 해줍니다.)

★ 아동의 의사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아동의 의도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짐작하여 '말'로 표현해 줍니다. 부모의 반응이 틀릴지라도 아동은 자신의 행동이나 소리가 의사소통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 아동 : (코끼리의 그림을 보며) "끼"

엄마 : "응, 코끼리" (엄마는 '응, 코끼리'라고 아동의 말을 짐작하여 말해줍니다.)

★ 아동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

"그만"이라고 말해주고, 간단한 설명을 해줍니다.

예) 아동 : (유리병으로 다가갈 때)

엄마 : "그만. 유리 깨져요."

★ 즉시 반응하기 ★

아동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자신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던 경험들 때문에 쉽게 용기를 잃게 됩니다. 부모는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즉시 반응해주어 아동이 의사표현하려는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만약 뒤늦게 반응하거나 무시한다면 아동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동 : (설거지하는 엄마에게 자동차 장난감을 가져가서) "엄마, 빠 빠"

엄마 : "아~ 빠방이구나. 붕붕"

★ 시범 보여주기 ★

아동이 2살말 조합 이상을 모방하지 못하는 경우 시범은 2살말이나 3살말 조합 수준이 적당합니다. 너무 긴 문장을 제시하여 아동의 모방의도를 상실하지 않게 합니다.

예) 아동 :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면서) "빵-빵"

엄마 : (장난감 자동차를 밀어주면서) "차 간다, 차가 빵-빵" ← 적절한 반응

(차를 밀어주면서) "차가 빵-빵 빨리 가게 엄마가 밀어 줄게." ← 적절하지 않은 반응

★ 악센트나 억양사용하기 ★

아동에게 너무 긴 음절수의 단어를 모방하게 할 때에는 적당한 길이의 음절에서 중간을 악센트나 억양을 주어 아동이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 아동 :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 : (아동에게 인사말을 알려주며) “안녕히계세요.”

← 적절한 반응

“안녕히 **계**세요.”

← 적절한 반응

★ 확대하기 ★

확대는 문장을 완성하거나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아동이 빠뜨린 동사, 조사, 전치사 등의 몇몇 단어를 더 첨가시켜 줌으로 아동이 말한 것을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예) 아동 : (우유를 들고) “우유”

엄마 : (우유 마시는 흉내를 내며) “우유 마세요”

예) 아동 : (아동이 손으로 밖을 가리키며) “누나 밖에”

엄마 : “누나가 밖에 있어”

★ 확장하기 ★

확장은 단지 문법적인 삽입만을 두지 않고,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엄마의 말을 아동이 모방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아동이 한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둡니다.

예) 아동 : (아가 인형을 앞에 두고) “아기 울어”

엄마 : (아가 인형에게 우유를 먹여주며) “그래. 아기가 배고파서 울어. 엄마가 우유 줄게.”

예) 아동 : (우유를 들고) “우유”

엄마 : (우유 마시는 흉내를 내며) “우유 마세요”

★ 교정하기 ★

아동의 잘못된 조사사용, 시제사용, 동사사용을 바르게 고쳐줍니다. 이때, 지나친 교정은 자신감을 뺏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 아동 : (아기가 접시 깬 그림을 보며) “아기 접시 깨졌어요.”

엄마 : “아기가 접기 깬어요. 라고 하는 거야.”

아동 : “아기가 접시 깬어요.”

★ 자기-교정하기 ★

아동과 말하는 동안, 아동의 잘못된 부분을 부모가 한번 그대로 틀리게 말한 후 바른 형태로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오류를 범한 후 다시 교정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기-교정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틀린 부분과 바른 부분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오의 판단을 길러줍니다.

예) 아동 : (삼촌의 얼굴을 떠올리며) “삼촌왔어요”

엄마 : (아동을 쳐다보며) “삼촌 왔어요. 가 아니지. 삼촌 올꺼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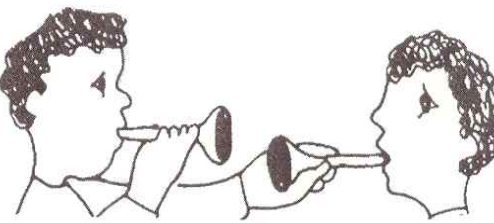
★ 문장 완성하기 ★

엄마가 먼저 말해주고, 아동이 나머지 뒷부분을 스스로 완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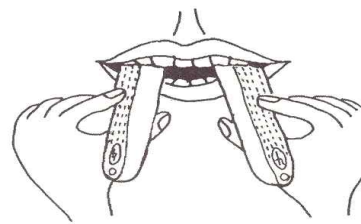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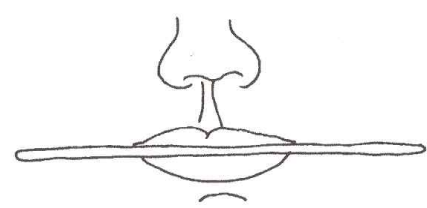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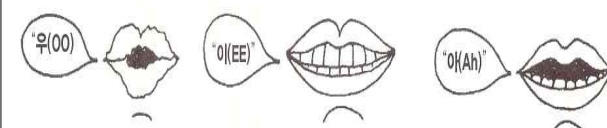
예) 엄마 : (인형을 차에 태우면서) “인형이 뭐하지? 인형이 차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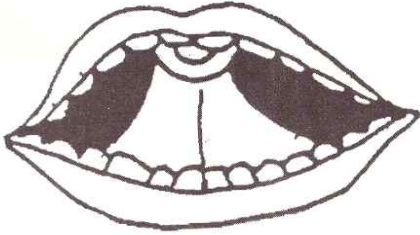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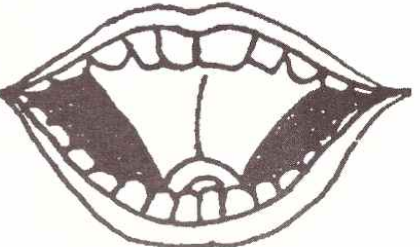
아동 : (엄마의 행동을 쳐다보며) “인형이 차 타요.”

가정 내 발음 지도 방법

발성 훈련 말하는데 필요한 발성과 입술 자음(ㅂ, ㅃ, ㅍ, ㅁ)을 발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누방울 불기		준비물
		의자, 장난감, 비누방울
나팔 불기		준비물
		의자, 나팔
공명 훈련 구강자음(ㄹ, ㄴ, ㅇ)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과 비강자음(ㄹ, ㄴ, ㅇ)을 구분하여 발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후(hoo) 음(m) 소리내기	완전한 구강산출 "후(hoo)" 	<u>쉽</u> 꼭 다문 입 "음(m)" 

턱을 위한 구강 운동 훈련

턱 좌우로 물기	 <p>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p>	준비물
턱 좌우로 물고 유지하기		설압자 또는 아이스크림 스틱
입술을 위한 구강 운동 훈련 모음과 입술 자음(ㅂ, ㅃ, ㅍ, ㅁ)을 발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입술 더물기		준비물 설압자 또는 아이스크림 스틱
우, 이, 아 소리내기		

혀를 위한 구강 운동 훈련		
지조(ㄴ, ㄷ, ㅌ, ㅍ, ㅍ, ㅍ), 경구개(ㅈ, ㅊ, ㅊ), 연구개 자음(ㄱ, ㅋ, ㅋ)을 발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혀 올리기		준비물
		과자
혀 내리기		준비물
		과자

가정 내 언어발달 촉진 놀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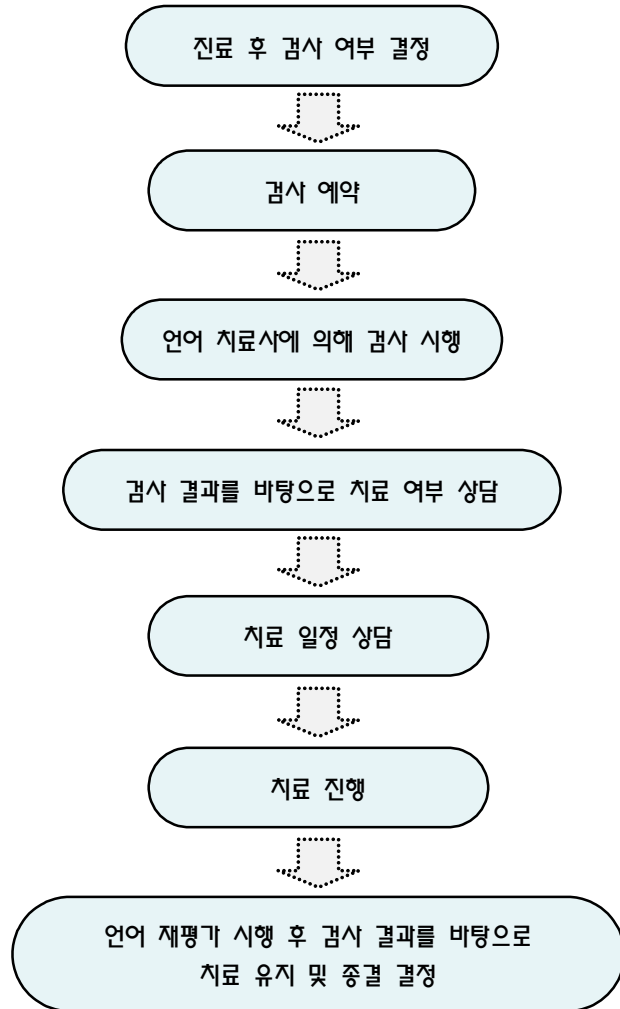
시 기	놀 이
13~14개월	산책, 거울 놀이, 파공 놀이, 신체 놀이(온몸 흔들기, 말 태우기 등)
15~18개월	온몸 놀이, 책 읽기, 입모양 따라 하기, 숨바꼭질, 블록 쌓기, 끈기
19~21개월	수 세며 놀기, 균형 놀이(장검다리 건너기), 그림 그리기, 구르기 놀이, 신체부위 찾기(눈,코,입)
22~24개월	색깔 찾기, 심부름 놀이, 그림책 보기, 소리 주인 찾기(모래, 돌, 단추 등 흔들기), 외출
25~27개월	다양한 소리 듣기(높낮이 다른 소리, 크기 다른 소리), 춤추기, 숫자 도형 맞추기, 찰흙 놀이
28~30개월	말 타기, 역할 놀이(소꿉놀이)
31~33개월	모래 놀이, 손바닥에 글자 쓰기, 신체 이름 알기(모든 신체 부위 이름), 퍼즐 맞추기
34~36개월	인형 친구 놀이, 실뜨기 놀이, 도미노 세우기, 크기와 색깔 비교하며 색깔 감각 익히기

위 놀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 언어 자극을 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 A

? 언어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언어 치료를 얼마나 오래해야 하나요.

!

개인에 따라 다르며, 발음 문제로 치료 받는 아동의 경우 문제되는 발음의 정확도가 좋아지면 언어 치료는 종결됩니다. 이외 단순히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로 치료 받는 아동의 경우 언어 재평가 결과 언어 발달 연령이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1세 미만의 차이가 나면 언어 치료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언어 뿐 아니라 이외 다른 중복 장애가 동반되어 치료 받는 아동의 경우 학령기까지 지속적으로 언어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언어 치료를 하면 또래 아이들만큼 좋아지나요.

!

현재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이 생활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적고, 치료에 대한 참여 및 흥미도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또 언어 이외 인지, 지능, 신체적인 문제, 감각의 문제, 정서의 문제, 주의 집중의 문제 등 다른 문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예후가 좋습니다.

출처

말명료도 향상을 위한 구강-운동 훈련프로그램: 가정학습용. 굿에듀북(2008).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김영태 저.
언어장애아동의 부모교육 길잡이. “엄마도 할 수 있어요.” 이금진역(2002).
언어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지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 편역(1996).
엄마는 나의 첫 말동무. 김선희 외 언어치료연구회 편역(2002).
네이버 김수연의 아기발달백과.

문의처

대전 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TEL. 042)338-2286 FAX. 042)338-2271